

고등학생이 인식하는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 관계에서 학습전략 수준의 조절효과

김규태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The Moderating Effect of Learning Strategy Level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Grit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Kyu Tae Kim
Department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인식하는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 관계에 대한 학습전략 수준의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D 광역시 소재 고등학생 573명이었으며, 주요 분석 방법은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K-평균 분석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이었다. 연구결과, 학업적 그릿은 진로개발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학업전략 수준은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에게 진로개발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전략 수준을 고려한 학업적 그릿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 관계에 대한 개인배경이나 관련 변수를 활용한 조절 및 매개효과 분석, 이들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리적 구조 관계를 밝히는 문헌연구, 학업적 그릿의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과 관련 변인 간 이론적 구조를 밝히는 질적 연구 등이 요청된다.

주제어 : 학업적 그릿, 진로개발역량, 학습전략, 고등학생, 진로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 of learning strategy level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grit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The sample for this study comprised 573 high school students, and data analysis was conducted mainly using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K-mean cluster analysi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learning strategy level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grit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This study sugge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grit enhancement programs coupled with learning strategy levels in order to facilitat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The future studies need to explore the literature review for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grit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the qualitative approach for drawing on the theoretical models among the related variables, and the relational research to explore mediating or moderating effect of the individual backgrounds and related variab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grit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Key Words : Academic Grit,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Learning Strategies, High School Students, Career Education

*Corresponding Author : Kyu Tae Kim(gtkim424@kmu.ac.kr)

Received March 28, 2019

Revised April 28, 2019

Accepted June 20, 2019

Published June 28, 2019

1. 서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의 82.1%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63.6%는 분명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장래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1].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재학 중에 자신의 생애목표와 진로 선택 및 준비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시사한다[2]. 특히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학업수행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진로탐색, 진로결정, 진로준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같은 진로개발능력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진로상담과 심리검사, 진로와 직업 수업, 현장학습 및 견학, 인터넷·동영상교육, 인사초청강연, 창의적 체험활동, 소집단·동아리활동 등을 통해 배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6].

학자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탐색, 적절한 진로 선택, 효과적인 진로준비와 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진로개발역량이라 정의하고 있다[7-9].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정미나, 임영식은 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계획 및 준비 등으로[10], 진성희, 성은모는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등으로[11], 임효신, 정철영은 자기관리, 진로정보 탐색 및 활용, 진로설계 및 관리 등으로 보았다[7]. 따라서 진로개발역량은 자기이해, 진로탐색, 직업세계이해, 진로준비 및 적응 등을 위한 능력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되는 진로 관련 학습이나 활동을 통해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한다는 점은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자기주도성, 학습동기와 성취목표 등과 같은 학습자 특성에 따라 진로개발역량 정도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진로 관련 학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습자 특성 중 학업에 대한 열정과 지속적 의미를 의미하는 학업적 그릿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 그릿을 탐색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진로탐색과 준비하는 동안 끊임없는 열정과 지속적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까지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결정 변수로서 학업적 그릿에 대해 탐색한 선행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학업적 그릿은 그릿(Grit)이라는 개념을 학업 상황에 적용한 것이다. 그릿은 목표와 흥미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는 흥미의 지속성과 학습과정에서 경험하는 실패나 좌절 및 장애를 이기며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는 경향성을 말한다[12-13]. 학자들은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여 학업적 그릿을 학업 목표 수행과 성공에 대한

끈기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힘으로 정의한다[14-16]. 학업적 그릿은 학업적 열정, 학업적 흥미유지, 학업적 노력지속 등을 요인으로 측정되고 있다[17-18].

학업적 그릿은 학업성취[19-22], 자기조절학습[23], 자기주도학습[24], 학습전략[19], 몰입[25]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다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그릿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26]과 진로적응성[27] 향상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는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그릿이 학생 개인이 설정한 진로목표와 준비를 위해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흥미를 잃지 않을 뿐 아니라 진로를 위한 학업 수행에서 경험하는 역경이나 지연을 이겨내어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성장 신념과 태도를 갖도록 함으로서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상정해 보고자 한다[9,26].

고등학생들은 진로 관련 탐색과 준비를 위한 학습 과정에서 학업적 그릿과 함께 인지적, 비인지적 학습전략을 활용하여 진로개발역량을 신장한다. 학습전략은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학습기술이며, 학습과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적절한 모니터링과 성찰을 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다[27, 28]. 학습전략은 학습동기[29], 학업성취[30], 자기주도적 학습[31, 32]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학습전략은 가치(내재적, 외재적 목표 지향성, 과제 가치), 기대(통제 소재, 자기효능감), 정서(시험불안) 등으로 구성된 학습동기 영역과 인지적 전략(시연, 정교화, 조직화, 비판적 사고), 메타인지적 전략(기획, 모니터링과 조절 등이 포함된 단일 요인), 자원관리 전략(시간과 학습환경 관리, 노력관리, 동료학습, 도움구하기) 등 학습전략 영역으로 구분된다[33].

학업적 그릿은 학습전략 영역 중 학습동기 측면과 맥을 같이 측면도 있다[13, 18]. 하지만 학업적 그릿은 인지, 메타인지, 자원관리 전략과는 구별되는 변수로 볼 수 있다. 학습전략은 학생들이 학업 과정에서 인지, 메타인지, 자원관리 전략 등을 동시에 또는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27, 28, 33]. 예를 들면, 학생들은 학습 내용을 조직화하기 위해 메타인지를 사용하며 동료 학습을 수행하거나, 비판적 사고를 통해 학습내용을 모니터링하면서 자신의 학습 노력이나 방식을 관리하는 전략을 활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학습전략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지만 그 활용 수준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것은 고등학생들이 진로 관련

학습 과정에서 기울이는 학업적 열정과 노력과 함께 진로 학습을 위해 활용하는 학습전략 수준이 상이하고 그에 따라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효과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35-3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발휘하는 학업적 그릿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효과도 있었지만, 학생 개인들이 진로 관련 학습 과정에서 사용하는 학습전략 수준이 학업적 그릿과 상호작용할 때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교과 및 비교과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 및 준비 관련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학업적 그릿의 영향에 대한 학습전략 수준의 조절효과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모형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가설1. 학업적 그릿은 진로개발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2. 학습전략 수준은 학업적 그릿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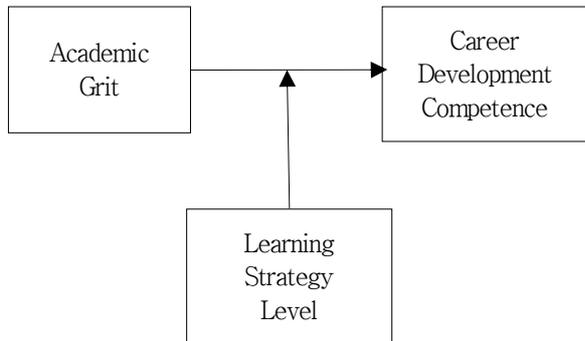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 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남녀 학생 600명이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573부였고, 분석된 설문지는 불성실하게 답변(예: 50% 이상 답변이 없는 경우)한 12부를 제외한 561부이었다. 분석 대상의 분포는 성별로는 남자 284명(50.6%), 여자 277명(49.4%)이었고, 미래 진로선택 여부는 진로를 결정한 집단 377명(67.2%), 미결정 집단 184명(32.8%)이었다. 동아리 가입 현황은 1개 가입한 집단이 266명(47.4%), 2개 219명(39.0%)이었고, 진로활동 참여

는 1-2번 참여 집단 222명(39.6%), 3-4번 참여 집단 133명(23.7%), 미참여 집단 130명(23.2%) 등이었다.

2.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학업적 그릿, 학습전략, 진로개발역량이었다. 학업적 그릿은 임현희, 조한익이 5점 리커트 척도로 학업적 열정, 학업적 지속노력, 학업적 흥미유지(문항수) 등 3개 요인, 23문항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4]. 본 연구의 신뢰도(Chronbach' α)는 학업적 열정 .958, 학업적 지속 노력 .948, 학업적 흥미유지 .868, 전체 .966이었다.

학습전략은 Pintrich 등이 7점 리커트 척도로 개발한 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중에서 인지 전략(시연, 정교화, 조직화, 비판적 사고 포함), 메타인지 전략, 자원관리 전략(스터디학습환경, 노력조절, 동료학습, 도움구하기 포함)에 해당되는 50 문항을 사용하였다[37]. 본 연구의 신뢰도(Chronbach' α)는 인지전략 .953, 메타인지전략 .858, 자원관리전략 .845, 전체 .963이었다.

진로개발역량은 임효신, 정철영이 5점 리커트 척도로 타당화한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을 측정할 목적으로 개발한 진로정보 탐색 및 활용, 진로설계 및 관리 등 3개 영역 49개 문항 중에서 자기이해 3문항, 진로탐색 5문항, 직업세계이해 5문항, 진로준비 2문항, 진로준비 2문항 등 17문항을 사용하였다[7]. 본 연구의 신뢰도(Chronbach' α)는 자기이해 .841, 진로탐색 .854, 직업세계이해 .847, 진로준비 .674, 진로적응 .733, 전체 .935이었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SPSS 24.0을 사용하여 변수의 신뢰성(Chronbach's α)을 검증하였으며, 변수 간 상관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Pearson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습전략 수준의 군집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 대한 학습전략 수준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변수 간 상관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Pearson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r=.441$), 학습전략과 진로개발역량($r=.589$)와 학습전략과 학업적 그릿($r=.594$) 모두 .001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Variabl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Academic Grit	Learning Strategie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1		
Academic Grit	.441***	1	
Learning Strategies	.589***	.594***	1

***p < .001.

고등학생이 인식하는 학습전략 수준에 대한 프로파일을 탐색하기 위해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 결과, 학습전략 수준에 따른 3개 군집 유형을 도출하였다. 집단 1은 낮은 수준의 학습전략을 용하는 하위집단으로, 집단 2는 보통 수준의 학습전략을 사용하는 중간집단으로, 집단 3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학습전략을 사용하는 상위집단으로 명명하였다.

Table 2. Learning Strategies Profile

strategies	Group1 (Lower) (n=53)	Group2 (middle) (n=352)	Group3 (upper) (n=156)	F value
cognitive strategies	2.59	3.96	5.35	458.183***
metacognitive strategies	3.10	4.43	6.08	606.065***
resource management strategies	3.83	4.19	3.98	4.656**

p < .01., *p < .001.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 관계에 대한 학습전략 수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진로개발역량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을 살펴보면, 1단계는 19.4%, 2단계는 29.0%, 3단계는 30.0%로 1단계에서 2

단계는 9.8% 증가하였고, 2단계에서 3단계로는 1.1% 증가하였다. 1단계는 학업적 그릿이 진로개발역량을 19.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그릿의 β값은 .441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5.121$, $p<.001$). 2단계는 학업적 그릿과 학습전략 수준이 고용가능성을 29.0% 설명하였으며, 9.8%의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적 그릿의 β값은 .208, 학습적 전략 수준의 β값은 .390였고, 두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11.601$, $p<.001$; $t=20.808$, $p<.001$). 3단계는 학업적 그릿, 학습전략 수준, 학업적 그릿×학습전략 수준(조절변수)을 30.0% 설명하였으며, 설명력 증가는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학업적 그릿×학습전략 수준)의 β값은 .675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3.029$, $p<.001$). 이러한 조절효과는 Fig. 2와 같이 학습전략 수준에 따라 학업적 그릿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영향도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습전략 수준은 학업적 그릿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영향에 대한 진로개발역량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학업적 그릿은 진로개발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연구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그릿의 진로결정자기 효능감[26]과 진로적응성[27]에 대한 정적 영향과 학습전략의 진로정체감[34]과 진로성숙[35]에 대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전략 수준은 학업적 그릿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영향을 정적으로 조절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연구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미비

Table 3. The Moderating Effect of Learning Strategy Lev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Grit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Step	Variable	B	β	t	R ²	F	R ² change	F change	Multicollinearity Margin of Error
1	Academic Grit(A)	.375	.441	25.121***	.194	134.593***	.194	134.593***	1.000
2	Academic Grit(A)	.177	.208	11.601***	.290	115.316***	.098	77.597***	.645
	Learning Strategy Levels(B)	.435	.390	20.808***					
3	Academic Grit(A)	-.141	-.166	-1.265	.300	81.062***	.011	9.174**	.073
	Learning Strategy Levels(B)	.021	.018	.141					
	A × B	.141	.675	3.029***					

p < .01., *p < .001. Durbin-Watson 1.804

Dependent Variabl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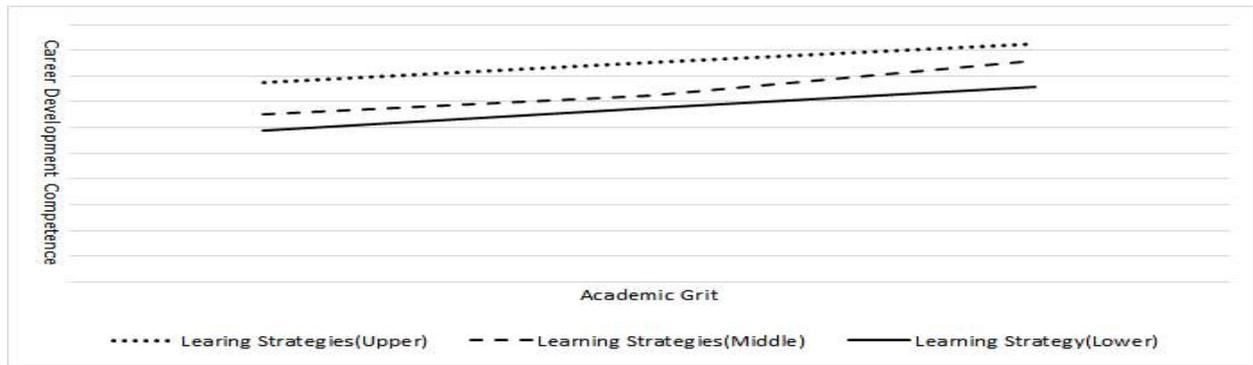


Fig. 2. The Moderating Effect Graph

로 밝혀지지 않았던 학업적 그릿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영향에 대한 학습전략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 진로교육의 실천적 측면에서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진로개발역량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진로 학습과 활동을 위한 학업적 그릿과 함께 학습전략 수준을 고려한 진로 학습 자료 제공 및 활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학습전략 수준이 높은 집단은 비판적 사고나 메타인지 등 고등사고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에 해당되는 직업 분야 동향을 종합해 본다거나 그것을 위한 자신의 준비 상황을 모니터링 및 성찰할 수 있도록 학습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학습전략 수준이 낮은 집단은 진로 관련 자료를 요약하거나 정보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교수자가 주도하거나 동료와 함께 진로 관련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작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진로 관련 학습방법이나 학습과제 제공 방법 측면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습전략이 높은 집단은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문제해결학습이나 프로젝트학습 등을 활용한 수업이나 진로 탐색을 위한 수행과제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학습전략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교수자 주도의 수업이나 특강을 통해 진로에 대한 사례나 모델링을 제공하여 진로 및 직업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학습전략 수준에 따른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탐색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습전략이 인지전략, 메타인지적 전략 및 자원관리전략으로 구분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 하위변수별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의 조절효과를 탐색하여 학습전략 하위변수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및 교재 개발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 관계에 대한 학습전략 변수만을 고려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 예를 들면, 자기효능감, 학습스타일, 성취목표지향성,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와 같은 변수들의 조절 및 매개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변수 관계에 대한 성별, 학년별, 학교유형별(일반계, 특성화고 등) 등 학생 개인 배경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 관계, 학업적 그릿과 학습전략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선행연구 부족으로 충분한 이론적 관계나 구조에 대한 논리를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위한 체계적인 문헌연구가 요청된다. 끝으로, 진로학습 상황과 맥락 속에서 학업적 그릿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영향에 관련이 있는 변인이 무엇이고, 그 변인 간의 이론적 구조는 어떠한가를 탐색할 수 있는 질적연구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8). *Adolescents Statistics*.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1/index.board?bmode=read&aSeq=367381.
- [2] S. H. Jin, E. M. Sung & C. W. Choi. (2015).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Korean youth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indicators. *Studies on Korean Youth*, 26(3), 195-220. <http://dx.doi.org/10.14816/sky.2015.26.3.195>
- [3] J. S. Go. (2010). A study on the variables related to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3(1), 1-19.
- [4] B. S. Park & S. B. Yang. (2017). The effect of parent's

- neglect on adolescents' career identity in the times of converg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c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3), 139-146.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7.7.3.139>
- [5] I. B. Song & H. Y. Kang. (2016). Analysis on the affecting factors of school career educational activities for junior-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10), 107-127.
- [6] K. S. Kim & I. J. Jang. (2018). The effect of perfectionism on career decision-making of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xtracurricular club activity satisfac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1), 243-251.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1.243>
- [7] H. S. Lim & C. Y. Jyung. (2015). The development of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inventory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8(4), 107-137.
- [8] J. H. Jeon. (2014). The relationships of effect among career and work competency, school career education conditions, work valu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7), 1-25.
- [9] Y. A. Cho & C. Y. Jyung. (2013).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social support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5(4), 53-77.
- [10] M. N. Jung & Y. S. Lim. (20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scale for adolesc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4), 65-84.
- [11] S. H. Jin & E. M. Sung. (201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ment tools for youth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0(1), 67-90.
- [12] S. L. Lee & Y. W. Sohn. (2013). What are the strong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Deliberate practice and gri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0(3), 349-366. DOI : 10.16983/kjps.2013.10.3.349
- [13] A. L. Duckworth & P. D. Quinn.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 [14] H. H. Lim & H. I. Cho. (2018).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cademic grit scale for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2(3), 495-523.
<http://dx.doi.org/10.17286/KJEP.2018.32.3.08>
- [15] A. L. Duckworth, T. A. Kirby, T. A., Tsukayama, E. H. Bernstein & K. A. Ericsson. Deliberate practice spells success why grittier competitors triumph at the National Spelling Be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2(2), 174-181.
<http://dx.doi.org/10.1080/00223890802634290>
- [16]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 D. R. Kelly.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DOI: 10.1037/0022-3514.92.6.1087
- [17] H. J. Lim. (2017). An exploratory study on grit's factor structure and its validity. *Asian Journal of Education*, 18(2), 169-192.
DOI : 10.15753/aje.2017.06.18.2.169
- [18] H. J. Lim. (2017). The current state of grit research and its need for reconceptual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1(4), 169-192.
DOI : 10.17286/KJEP.2017.31.4.04
- [19] E. H. Seo & E. Y. Kim. (2018).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strategy between grit and self-resilienc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6), 107-127.
<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16.107>
- [20] J. L. Lee & D. H. Kwon. (2016).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locus of control, mindset, grit,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11), 245-264.
- [21] J. A. Choi. (2018). The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goal-self concordance, grit on academic related effor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6(1), 41-63.
- [22] H. S. Ha, H. J. Lim & M. H. Hwang. (2015). The group difference of grit and self-control and its relations to school maladjustment, academic achievement, and predictability of personality.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1(3), 145-166.
- [23] C. A. Wolters & M. Hussain. (2015). Investigating grit and its relations with college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Metacognition and Learning*, 10(3), 293-311.
<https://doi.org/10.1007/s11409-014-9128-9>
- [24] C. S. Lee & H. Y. Jang. (2018). The roles of growth mindset and grit in relation to hope and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95-102.
<https://doi.org/10.15207/JKCS.2018.9.1.095>
- [25] A. J. Hong, M. H. Won, G. M. Park, J. H. Lee & Y. S. Jo. (2017). Effects of grit on affective commitment and a mediating effect of reflective learning.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31(5), 33-58.
- [26] E. I. Jeong,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Everyday Creativ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y Grit Typ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8), 18(2), 1-26.
<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2.1>
- [27] K. Huh & J. I. Lee. (2018). The learning strategy use in a convergence flipped clas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3), 173-179.
<https://doi.org/10.15207/JKCS.2018.9.3.173>

- [28] S. M. Park. (2009). Development of learning strategy scale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1(1), 16-27.
- [29] S. Y. Jung & J. S. Kim. (2013).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motiv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transitional period. *The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9(1), 161-176.
- [30] A. Muelas & E. Navarro. (2015). Learning strategies and academic achievement.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65, 217-221.
DOI: 10.1016/j.sbspro.2014.12.625
- [31] H. J. Kim & M. S. Yeom. (2014). The study on the effect of reading and debate class on undergraduates' self-leadership and self-regulated learning.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8(4), 513-540.
- [32] M. C. English & A. Kitsantas. (2013). Supporting student self-regulated learning in problem-and project-based learning.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Problem-Based Learning*, 7(2), 128-150.
<https://doi.org/10.7771/1541-5015.1339>
- [33] Pintrich, P. R., Smith, D. A., García, T., & McKeachie, W. J. (1991). A manual for the use of 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https://eric.ed.gov/?id=ED338122>.
- [34] J. Y. Kim & K. H. Lee. (2016). Exploring factors influenc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9), 1-28.
<http://dx.doi.org/10.22251/jlcci.2016.16.9.49>
- [35] D. S. Kim & Y. J. Joo. (2017). Latent mean analysis on the parent support, teacher support, career maturity, self-directed learning, and school satisfaction between general and vocational high school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3), 95-122.
- [36] M. S. Kim, S. H. Lee, S. H. Paik & Y. S. Choi. (2015). Th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students' grit scores and their differences across sex and grad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5), 297-322.
- [37] A. H. Lee. (2012).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competence and vocational basic skills in college students: A multi-group analysis by learning style. Keimyung Univ.

김 규 태(Kim, Kyu Tae)

[충원]



- 2011년 5월 : 텍사스주립대학교(Ph.D)
- 1997년 3월 ~ 2016년 12월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2011년 9월 ~ 현재 : 계명대학교 부교수
- 관심분야 : 교육행정, 교육정책
- E-Mail : gtkim424@kmu.ac.kr